

World Topic 해외미술 | 영국 프랑스 미국 터키

U.K

## 장소와 시간의 전이에 따른 번역의 간극

런던 헌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_신미경 초대전

글 | 김미영 영국 통신원 ● 사진 | Haunch of Venison Gallery 제공



1

2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리는 런던 헌치 오브 베니슨 갤러리에서는 작가 신미경의 지난 17년간의 조각 작업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전시 〈Translation·번역〉이 열렸다. “어릴적 동화책 속의 토끼가 달에서 방아를 짹던 모습을 상상하다가 직접 달나라에 와서 토끼를 본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작가는 처음 런던에 도착했던 97년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대학입시 때부터 서양고전 미술사를 달달 외우며 테크닉을 익히던 작가에게 이들 고전 조각상들은 현재진행형의 대상이었으나 당시 영국인들에게 멀고 먼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레이드 대학원 시절, 학교 복도에 있는 고전 조각상을 그대로 모각하는 동양학생의 작품이 상당한 센세이션이었다고 한다. 멀리 아시아에서 온 한국 학생이 그들에게도 까마득히 먼 고전 조각을 어떻게 이리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서양조각을 진품같이 모사를 해도 외국인이 만들어내는 모각에는 무언가 다른 미묘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작가는 아무리 외국문화를 잘 번역해도 완전히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인 다다를 수 없는 간극, 이 ‘진공’ 공간을 시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연히 박물관에서 대리석 조각을 보고 그 재질이 참 비누같다고 생각한 작가는 이 또한 외국인의 시각을 통한 새로운 발견이라 생각하여 비누를 소재로 그리스 고전 조각을 모각하기 시작하였다. 서양 중심의 권력 구조, 우월성을 모사하는 것이 아닌 독창적인 현대미술로 재현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비누 조각은 재료 선택에서부터 제작 방법까지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천정이 높은 고풍스러운 갤러리 공간에 들어서면 정면에 마주한 널찍한 돌계단이 멋들어지게 양옆으로 펼쳐져 있다. 바로 정면에 서있는



2

3

1 〈Ghost Series〉 Soap 2010 © Meekyoung Shin Courtesy Haunch of Venison

2 〈Venus〉 73×45×125cm Soap 2010 © Meekyoung Shin Courtesy Haunch of Venison

3 비누라는 재료로 고전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신미경의 초대전에 현지 미술인과 관람객들의 관심과 친사가 모아졌다.

그리스 조각상이 마치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절묘하게 어울린다. 작가가 대영박물관에 있는 동상을 비누로 모각하여 젖은 옷 느낌을 그대로 살려 만든 98년 작품이다. 반면 2004년 대영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는 〈Crouching Aphrodite〉는 한국에서 만든 작품으로 원본없이 미술사 도판을 보고 포즈를 취해 석고로 뜯 후, 이를 바탕으로 다시 비누로 조각한 것이다. 형식은 미술사에서 벌려왔으나 동양인의 몸으로 재현된 것으로 고전과 현대, 동·서양의 조합인 하이브리드 형식을 취한 작품이다.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번역한 것이다.

전시장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고안한 구도적 콘셉트에 따라 등을 보이고 있는 〈쿠로스〉를 마주하게 된다. 대영박물관을 방문하기 전 그리스에서의 따뜻한 햇살, 바람, 냄새 등이 어우러진 생생한 파르테논을 경험한 후, 대영박물관으로 옮겨놓은 파르테논을 보면서 마치 박재된 호랑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원래 존재하던 곳에서 뚝 떨어져 전혀 다른 공간에 와 있을 때의 이질감을 당시 멀리 이국 땅에 와있는 작가 자신으로 은유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조각상이어도 그것의 시간과 장소가 바뀌면 원작의 아우라, 기능, 목적이 상실되는 것 같이 작가는 다른 공간, 다른 시간으로 옮겨갈 때 벌어지는 간극과 차이를 작품 속에서 번역하고자 하였다.

이후 동양의 고전을 모각하기 시작하여 태어난 것이 '도자기 시리즈'다. 대영박물관의 한국관 달 항아리를 비누로 만든 도자기로 감쪽같이 대체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작품이 어느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원

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비누로 만든 가짜일 수도 있고, 모던한 공간에 놓여있는 비누 골동품이 낯설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넓고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고스트 시리즈'가 한눈에 들어온다. 언뜻 보아도 수백 개 남짓 되어 보이는 투명한 도자기들이 무지개 빛으로 펼쳐져 있어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고요한 실내의 적막함에 스며있는 은은한 비누향 뿐만 아니라 작가의 긴 인고의 시간과 에너지가 느껴진다. 비누 도자기를 의역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 싶던 차에, 테이트 브리튼에서 우연히 발견한 페르시아 유리병에 영감을 받아 시작한 것이 고스트 시리즈라고 한다. 이는 비누 도자기를 원본 삼아 다시 복제한 것으로서 도자기 작품의 그림자로, 또 실체의 아우라로 의역된 것이다.

영원무구할 것 같던 돌조각이 비누처럼 닳아진 모습을 보며 작가는 "영원무구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비누조각의 10년은 돌조각의 1000년의 세월과 같다"고 설명을 덧붙이며 시간을 압축하여 보여줄 수 있는 비누는 유물이 가진 오랜 역사를 압축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한다. 유물화 과정 프로젝트로 현재 카벤디쉬 광장의 기마상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2년 남짓의 설치기간 동안 2000년의 노화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멀리 있고 오래된 것을 눈앞에 새로 재현하는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가만의 트랜슬레이션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

## FRANCE

### 몬드리안과 데 스타일

글 | 이영희 프랑스 통신원 ● 사진 | Adagp, Paris 2010

“삶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목적은 스타일이다.” —그룹 데 스타일 De Stijl—





3

1 몬드리안의 아뜰리에와 테오 반 도에스부르흐 작품이 있는 전시전경

Theo Van Doesburg, (1917 Vitrail, tryptique de panneaux, 각 286.5×56.6cm Otterlo, Kroller-Muller 미술관 소장) 작품과 파리 Depart가 26번지에 있는 1926년도 몬드리안의 아뜰리에 재건 Projet réalisé pour la première fois par Frans Postma en 1994-1995 lors de l'exposition <Earthly Paradise> au Beurs van Berlage d'Amsterdam. Haarlem, Collection Link Photo : Philippe Migeat, Centre Pompidou

2 Theo van Doesburg, Gerrit Rietveld, <Intérieur de la Maison Bart de Ligt> 1919 photographie n/b in De Stijl, III, n° 12, novembre 1920. La Haye, RKD (Netherlands Institut for Art History) ©Adagp, Paris 2010

3 Georges Vantongerloo, <Composition> 캔버스에 유화, 54×36 cm 1917~1918 Paris, Centre Pompidou,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Dist. RMN, photo Philippe Migeat, Centre Pompidou © Adagp, Paris 2010

2

20세기 초 파리는 근대 문화 발생지이자 메카였다. 몬드리안은 1912년에 파리로 와 그의 작업세계를 구축하고 1938년까지 파리에서 체류하며 미술사에 자리매김한다. 그는 큐비즘과 접하고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점차적으로 자신의 색,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그의 파리 작업실에는 건축가들이 정기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Neo-Plasticisme)로 부터 기하학적인 형태를 발전시킨 위대한 화가이자 테오 판 두스부르흐(Theo Van Doesburg)가 만든 데 스틸(De Stijl : Style, 스타일) 예술 운동의 주요 구성원이다. ‘데 스틸’은 이들이 창간한 잡지의 명칭이기도 했다. 그들은 1918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32년 1월까지 『데 스틸』 잡지를 발간했다.

익히 알다시피 몬드리안의 가로 세로 직선들의 조합은 자연에서 추출된 것이다. 그는 유년시절부터 집과 근접한 목장에 둘러싸여 자연에서 성장해서 자연의 거대한 수평, 수직선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한 자연을 그리면서 상징적인 수직, 수평을 추출해 내는 과정은 추상화가들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분석하는데 기초가 된다. 가장 순수한 조형적 형태인 선, 그리고 색에 있어서도 가장 순수한 색이라 하는 삼원색을 무채색과 함께 기하학적 조합을 통해 무한공간을 만들어냈다. 데 스틸 예술운동은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몬드리안의 예술 세계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들의 모토는 삶과 예술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삶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목적은 스타일이다.”라는 말은 참으로 강렬한 예술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그림은

공간으로 뛰어나와 이리저리 움직이며 생명력을 뿜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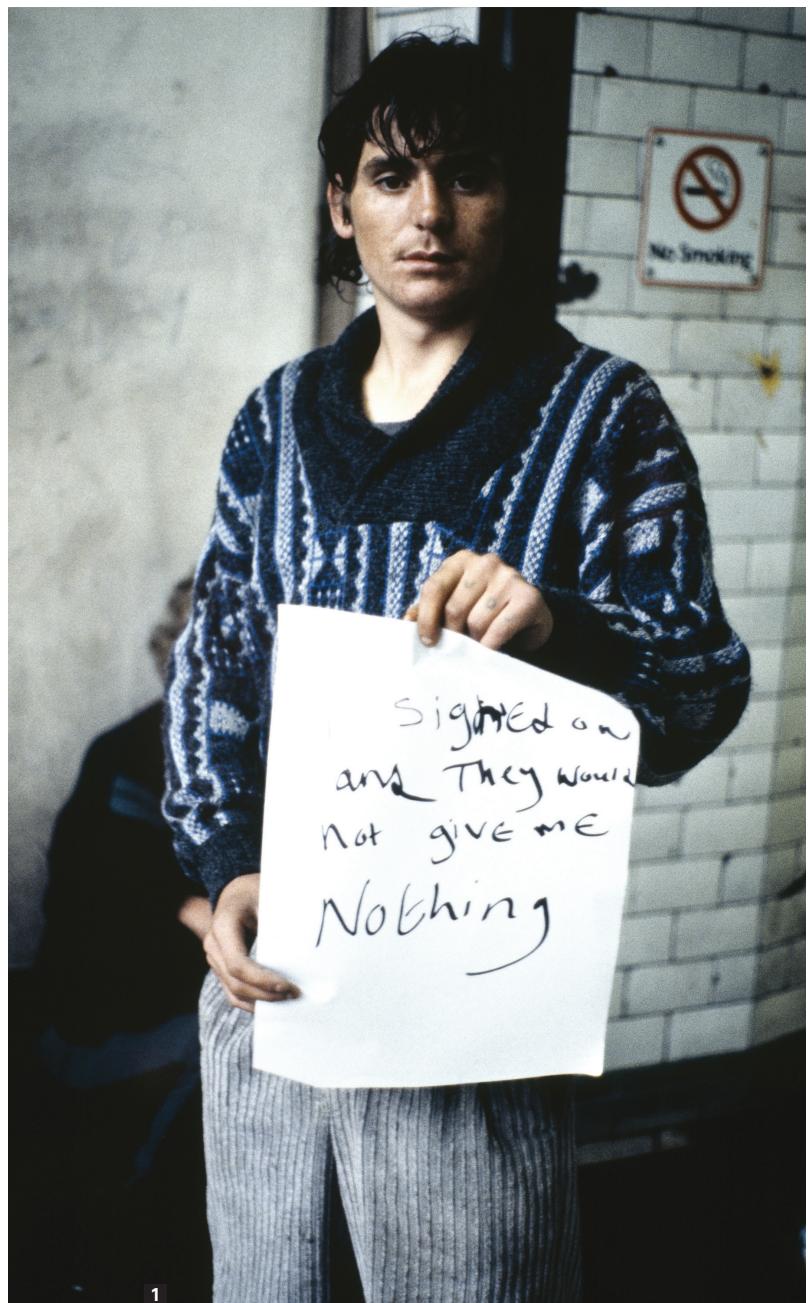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 4개월 간 ‘몬드리안’과 ‘데 스틸’의 전시가 풍파두센터 제1전시실 2,100m<sup>2</sup>에 펼쳐진다. ‘몬드리안’과 ‘데 스틸’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이번 전시는 연대기적으로 몬드리안의 작업을 치밀하게 조명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 스틸 멤버,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들의 그림, 데생, 사진 작품들을 전시한다. 우리가 쉬이 알고 있는 가로와 세로의 검은 선의 격자에 삼원색을 이용하여 화면을 구성한 작품들이 전시되며, 그림, 가구 디자인, 공간 디자인, 건축물 등 몬드리안의 그림이 스스로 입체가 되고 공간이 되어 탄생한 결과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주로 몬드리안과 네덜란드 화가, 이론가, 시인, 건축가, 그룹 데 스틸 창시자 테오 판 두스부르흐 그리고 독일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T.Rietveld) 3인의 작품이 주가 된다. 리트벨트가 트루스 슈뢰더-슈레이더(Truus Schröder-Schräder) 여사를 위해 1924년에 지은 The Rietveld Schröder House는 대표적인 데 스틸 그룹의 건물이다.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0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단순한 직선으로 구성된 각진 흰색 건물에 간간히 보이는 삼원색의 직선은 간결함을 보여준다. 우아한 곡선도 아니고 긴장감을 주는 지그재그도 아니지만 사각의 무한한 세계는 오늘날까지도 미술사와 디자인사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에 포괄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

## USA

### 우리의 사생활에 관하여 Talent Show in MoMA PS1

글 | 김소연 미국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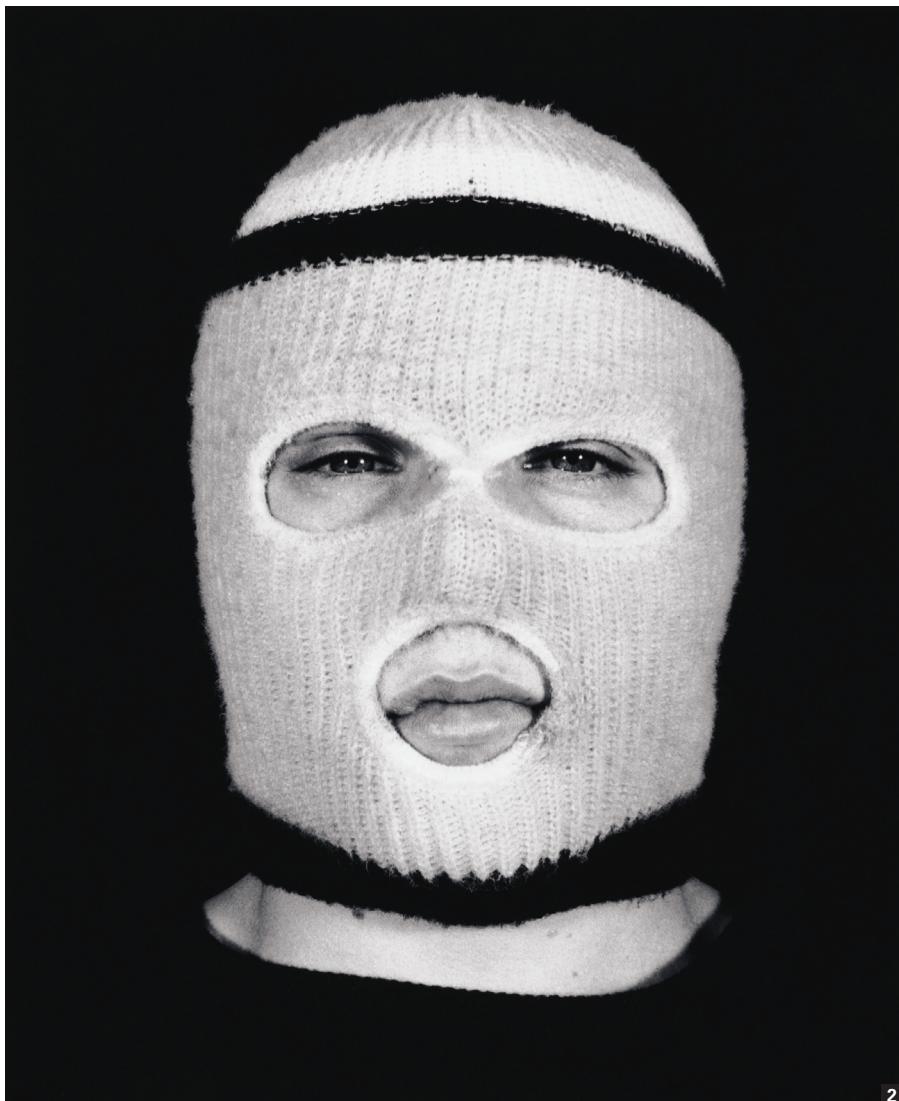


1

2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뉴욕 맨하탄의 MoMA의 분관인 MoMA PS1에서는 〈Talent Show〉가 열린다. PS1(Public School 1)은 예전에 공립 학교였던 건물로 어두운 나무 계단, 철 기둥, 화장실의 오래된 타일, 골동품 같은 구식 수도꼭지, 교실의 낡은 나무 바닥 등이 유지되어 있어 예전 어린 학생들의 배움터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 건물 자체는 골동품처럼 옛날이 그리워지는 감상을 불러 일으키는데 비하여 미술관의 담장은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현대적인 축조물이다.

현대에는 누구라도 원한다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공개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나를 드러내는 것과 달리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나의 사생활을 엿보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세상에 노출시키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번 MoMA PS1 의 〈Talent Show〉에서는 18명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나를, 내 생각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내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키고 싶은 본능, 그리고 내 사생활을 지키고 싶은 본능을 거스르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관객에게 하고 있다.

해나 윌케(Hannah Wilke)의 인트라 비너스 트랩(The Intra-Venous Trap) 비디오 작품은 그녀가 암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그녀의 남편이 기록 촬영한 것이다. 방안에 16개의 스크린을 설치하였고, 이 스크린에 시간에 따라 변해 가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나 윌케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이 작품에서도 역시 자신의 모습을 숨김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대화, 음악 소리, 침뱉는 소리, 배경으로 보이는 젊은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조금 건강했을 때의 모습,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 기르던 새들, 신문기사를 읽는 모습, 새를 그리는 모습 등등의 영상들이 16개의 스크린에 그려지는데 이 스크린들이 모두 하나같이 감상하는 사람의 눈을 잡아놓으려 하므로 어느 화면에 눈을 맞추어야 할지 몰라 쉬지 않고 눈길을 이리저리 돌릴 수밖에 없다.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은 그의 1972년 작품 〈Wire trap〉에서 '사생활의 울타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해나 월케가 아주 세세한 개인생활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 놓은 것과는 달리 크리스 버든(Chris Burden)은 자신이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라디오를 통해 세상에 노출시킴으로써 사생활의 울타리는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대화의 주인은 누구인지, 대화를 공개한 일은 도의적으로 허락되는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될 수 있는 것인지, 관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크리스 버ден이 사용한 구식 전화기에 부착된 녹음도구들은 이 행위가 7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발전된 도청장치, 감시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와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고 볼 때, 크리스 버든의 시대애나 지금이나 이 작품을 보는 이들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이번 〈Talent Show〉에는 소피 칼레(Sophie Calle), 필립 로르카 디코르시아(Phillip-Lorca DiCoccia), 애이드리언 파이퍼(Adrian Piper), 앤디 워홀(Andy Warhol), 피터 캠퍼스(Peter Campus)등 작가들의 흥미로운 작품들도 전시되고 있다. ■

<sup>1</sup> Gillian Wearing, 〈I Signed On and They Would Not Give Me Nothing from Signs that say what you want them to say and not Signs that say what someone else wants you to say〉, 1992~1993 chromogenic print mounted to aluminum 16-1/2×11-3/4in. Collection Walker Art Center. Gift of Richard Flood, 2006 Image reproduced courtesy Maureen Paley, London and Regen Projects, Los Angeles.

<sup>2</sup> Chris Burden, 〈You'll Never See My Face in Kansas City〉 Morgan Gallery, Kansas City, Missouri, U.S.A; November 6, 1971 Relic: ski mask. Collection: Gilbert and Lila Silverman, Southfield, Michigan.

<sup>3</sup> Peter Campus, 〈Shadow Projection〉 rear projection screen, theatrical spot light, surveillance camera, projector 196-5/16×236-1/4 in. Marieluise Hessel Collection, Hessel Museum of Art, Center for Curatorial Studies, Bard College, Annandale-on-Hudson, New York 1974

## TURKEY

### 프리다 칼로 & 디에고 리베라 예술 부부의 인생

글 | 김백란 터키 통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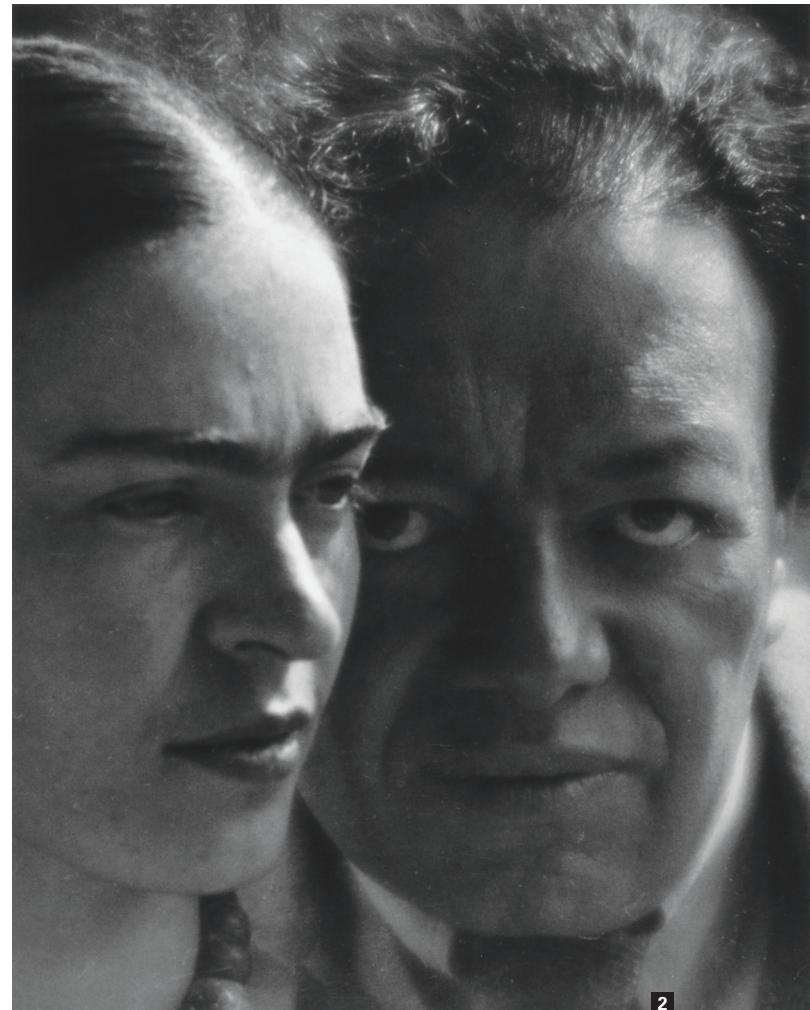
1

드라마틱한 예술 부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이 독일인 큐레이터 Helga Prignitz-Poda의 기획으로 터키에서 최초로 전시되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3월 20일까지 폐라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들 부부의 삶은 작품만큼 독특하며 멕시코 이외 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탓에 더 더욱 의미가 깊다.

프리다 칼로(Frida Kahlo)는 1907년 멕시코 남부 출생이다.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절게 되었고 의학공부를 결심하여 예술, 문학, 철학 등을 유명한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다. 19세 때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술 한 달 후 병원에서 나온 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붓을 들게 되었다. 주로 자화상을 그렸다. 침대 천정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려 하였다. 그녀의 자화상에는 강렬한 자신의 내면세계가 숨김없이 때로는 은유적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러 디에고 리베라를 보러갔고 이들은 1929년 결혼하게 되었다. 자신의 건강문제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프리다는 동물 애호가이기도 해서 〈원숭이와 나〉 같은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자화상을 그리듯 자신의 감정을 신체에 도입시켜 마침내 자신의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희열을 맛보는 듯했지만 디에고, 리베라의 불성실함으로 1939년 이혼을 하고 1년 뒤에 재결합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또한 그녀는 일생 동안 32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1953년에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1953년 47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생을 마친다. 총 143점의 그림 중에서 55개가 자화상인 그녀에 대해 피카소는 “우리들은 그녀만큼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잘 모른다.”라고 평했을 만큼 눈썹, 코, 입 등의 세부적인 묘사가 뛰어나다.

초현실주의로 평가되나, 멕시코의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부각시킨 그림들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자신의 고통과 삶의 현실을 반영한 프리다만의 초연함이 돋보인다. 1938년 뉴욕에서 초현실주의 작가 앙드레 브르통의 도움으로 전시를 열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939년 열린 파리 전시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은 루브르 미술관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전시 공간에 소장되어 있다.

디에고 리베라는 1886년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술교육을 위해 1907년 스페인, 1908년 파리로 가서, 1914년까지 파리에서 피카소, 모딜리아니 등과 교유하게 된다. 그 당시에 입체파의 영향을 받으나 이내 르네상스 시기의 프레스코 기법에 매달리게 된다. 1920년에 그는 젖은 바탕 위에 은은한 색채를 사용하는 프레스코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간다. 거기서 지오토,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큰 감명을 받게 된다. 1921년 멕시코 혁명 이후 그동안 소외되었던 인디언 토착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디에고 리베라는 자신이 보고 느꼈던 유럽 회화와 멕시코 전통을 접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2

1 프리다 칼로, 〈Tehuana로서의 자화상 또는 내 생각 속의 디에고〉 캔버스에 유채 76×61cm 1943  
2 〈디에고와 프리다〉 35.6×27.9cm 1934 photo by Munkacsy

대형 벽화에 멕시코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미국의 초청으로 디트로이트 미술학교와 뉴욕 록펠러 중심지에도 벽화를 그리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정치성과 혁명 정신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그의 활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멕시코 근대 회화의 거장인 시케이로스와 미술협회를 만들어 멕시코 회화의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준다. 폭넓은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멕시코의 토착문화를 두드러지게 조명하는 탓에 캔버스화를 많이 그리지는 않았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여러 점의 소품에서는 입체파적인 분위기이며 중세적인 기법과 라틴아메리카의 유구한 전통이 도드라지는데, 이러한 그의 작품세계는 공공 벽화에서 황금의 꽃을 피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